

예멘 2개 광구 7억5000만배럴 확보

한국석유공사 주도의 한국 컨소시엄이 5월30일 예멘 현지에서 예멘 39 및 4광구 개발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39 광구 및 4 광구는 2005년 7월과 9월에 각각 낙찰받아 2년여에 걸친 협상끝에 본계약을 체결한 광구로 추정 매장량이 총 7억5000만배럴에 달하고 있다.

39광구는 오만 접경의 육상광구로 예상 매장량이 5억배럴로 추정되며, 4광구는 예상 매장량이 총 2억5000만배럴(확인 3600만배럴에 추정 2억1600만배럴)로 평가되는 예멘 중부 육상광구이다.

특히, 예멘 4광구는 3600만배럴의 매장량이 확인된 개발광구를 포함하고 있어 2008년 본격개발이 시작되면 일일 5000배럴의 원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2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예멘에서 기존 3개를 포함 총 5개 광구 개발로 확대된다.

한국석유공사는 예멘에서 기존 2개(70 육상 및 16 해상) 운영권 사업 외에 추가로 39 및 4광구의 운영권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유전개발의 중심지역인 중동에서 다양한 개발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됐으며, 이라크 등 현재 추진중인 중동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유전개발 사업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7/05/30>